

# 복구, 코로나 방역물품 선제 구입 효과 특출

마스크·체온계·손 소독제 등 9억여원 어치 구입 적기 배포  
아크릴 차단막 등 아이디어 상품 현장 배치 전국 벤치마킹  
지역업체 물품 우선 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광주시 복구가 코로나19 방역 물품 구입·배포에 적극 나서면서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특출히 보고 있다. 복구는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이색 아이디어 상품들을 빠르게 현장에 적용시켜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광주 복구 등에 따르면 복구는 올해 총 9억3736만여원의 방역 물품을 구입해 코로나19 차단에 선제 대응했다.

복구가 구매한 방역물품은 마스크(2억 3930만원), 손소독제(2억3020만원), 손 세정제(4060만원), 체온계(1억2530만원), 기타(살충제·스프레이·살균제·방역 소독기·수송배치·방호복, 3억 180만원) 등 총 10종에 달한다.

복구는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2월 부터 총 70건에 이르는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했다.

전국적으로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가 품질 사태를 빚는 등 방역물품 확보하

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복구는 각 부서의 요청에 맞는 물량을 신속히 확보해 배포했다.

복구는 지금까지 재난 관리기금(3억 5480만원)으로 25건의 방역물품 계약을 진행했으며, 일반회계(5억8240만원)로 45건의 계약을 맺어 방역물품을 확보했다. 11개 부서에서 총 31개 업체를 통해 방역물품을 신속히 구입한 덕분에 코로나19 차단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서별로는 시장산업과(2건), 보건행정과(14건), 안전총괄과(10건), 일자리정책과(1건), 여성아동과(2건), 기획조정실(1건) 노인장애인복지과(8건), 교통지도과(1건), 경제종합지원센터(2건), 체육관광과(2건), 감사담당관(2건) 등이다.

복구는 올해 초 고령 노인과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방역물품 확보가 긴급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방역물품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복구는 특히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 방역물품 지원계획 성립 이전부터 미리 예산을 편성하고, 마스크 구입에 뛰어 들었다.

복구는 이를 통해 전남 영암의 한 업체를 통해 마스크 1만8309장을 수의 계약을 했지만, 공공마스크에 대한 정부 정책 변경으로 납품이 지연되자 부서에서 영암 공장을 직접 방문 수령해 경로당 등에 마스크를 지원하기도 했다.

복구는 품질 사태를 빚던 체온계를 구입하기 위해 광산구 소재 관련 업체를 직접 방문해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처럼 발빠르게 확보한 방역물품은 지난 3월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품절사태로 가격이 오르고 물품 구입이 어려운 시기에 복구 관내 경로당 372곳과 주간보호센터 60곳에는 차질없이 방역 물품이 공급됐다.

복구는 또 지난 6월 어린이집 전면개원에 따라 관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295곳에 피부적외선체온계 및 손소독용품을 공급해

야하는 상황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량물량 확보가 가능한 업체를 지정했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통해 체온계, 손소독제 등을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잊지 않았다.

복구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아이디어 상품을 신속하게 투입해 전국 자치단체의 롤모델이 되기도 했다.

특히 복구는 민원인 많은 방문이 있는 부서 등에 투명 아크릴 차단막을 설치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 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복구는 이 밖에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어려움과 수기명부 작성 방식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허위·부실 기재로 인한 신뢰도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안심콜(CALL) 출입관리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는 광주시 최초로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대화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립부 투명마스크 2000매를 구매해 민원응대를 하는 현장에 배포하기도 했다.

문인 복구정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을 생각하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효광초교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대상

광주 초중고 14개팀 60명 참여

시하는 자리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지난 15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개최한 '제14회 광주시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에서 서구 효광초등학교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는 청소년들이 생활 속 안전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스스로 발굴해 해결 방안을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와 무대 재현으로 제

이번 대회에는 지역 초등학교 7개팀, 중학교 5개팀, 고등학교 2개팀 등 총 14개팀 60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대상으로 광주시교육감상을 차지한 효광초는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주제로 완성도 및 위험개선 부문, 주제 전달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오는 11월 소방청이 주최하는 전국 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의료기관 교통사고 허위환자 합동점검

광주시는 "자치구,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오는 11월 13일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의료기관 96곳을 대상으로 부재환자 관리실태를 합동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가짜환자)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입원환자 외출·외박에 대한 기록·관리 준수 여부 ▲의료기관의 외출·외박 기록부 필수기재사항 확인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외박에 대해 인적사항, 사유, 허락기간, 귀원 일시 등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관리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 등과 함께 부재환자 명단을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손두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서류상 입원한 이른바 '가짜환자'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부재환자로 인한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및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를 통해 보험사기 신고가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환경공단 제1하수처리장 악취 저감 시설 개선

광주환경공단은 "미세악취 누출까지 막아낼 수 있는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 악취 저감 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 제1하수처리장은 일일 60만톤의 생활 하수가 처리되는 호남권 최대 규모의 하수처리장으로, 주거지역인 상무지구와 인접해 있어 법적기준치에 미달하는 미세한 악취에도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하수가 최초 유입되는 총 650㎡ 규모의 침사지 8지를 밀폐화하고, 하수와 함께 유입되는 모래 등의 토사류와 플라스, 비닐류 등의 부유물질을 자동으로 수거하는 설비를 도입했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하루 최대 20톤에 달하는 수거된 이물질들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보관해 악취를 잡아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 역무원 응급처치 전문가 된다

적십자사 전문가 초청 전문교육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비상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고객접점 응급처치 전문가'를 양성한다.

공사는 오는 22일까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노경석 강사를 초청해, 현장에서 승객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역무원 57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기도폐쇄 시 대처법, 골절 및 출혈 대응법 등 각종 상황별 응급처치 전문교육을 한다.

공사는 또 내년 상반기에도 응급처치

전문가 57명을 추가로 양성하는 등 모든 역무원들이 순차적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전역 사 고객안내센터 인근에 심장제세동기를 설치 완료했으며, 전 임직원이 응급조치 기본교육을 받는 등 철저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공사 윤진보 사장은 "공사 임직원 누구라도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펼치고 있다"면서 "도시철도 2호선 시대에 대비,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최근 비상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고객접점 응급처치 전문가' 교육을 받고 있다.

## 경기도서 올 첫 환자 발생...일본뇌염 주의보

광주시 모기에방수칙 준수 당부  
12개월~12세 어린이 예방접종

광주시가 일본뇌염 바이러스 감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경기도에서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리면 대부분 무증상이나 250명 중 1명 정도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며, 일부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7~9월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으

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는 연령의 모든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성인은 눈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으면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10월말까지 관찰되고,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8월에서 11월에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에 방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